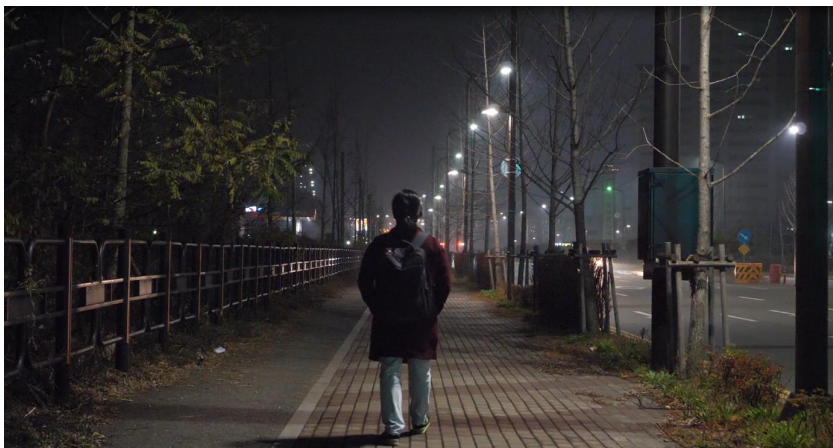




예 술 가
김 양 우

예술인명	김양우	
소 개	나는 장소와 본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바라보는 풍경과 장소, 보는 행위와 대상과의 관계에 대하여 고민으로 작품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이동, 통근, 운송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요 이 요역	2018.02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조형학과 석사
	2009.02	서울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학사
개 인 전	2019.9	전시《Commuting Lives》 3331 Art Chiyoda, 도쿄, 일본
	2019.4	전시《67.32km》 공간 일리, 서울, 한국
	2017.12	research project《67.32km》 Slow Slow Quick Quick, 서울, 한국
	2017.4	전시《Camera movement》 바롬 갤러리, 서울, 한국
	2016.12	공연《Infinite Navigation》 세운청계상가 일대, 서울, 한국
	2015.11	공연《Somewhere in the World》 800/40 300/20 200/20, 서울, 한국
	2013.11	공연《더 이문동》 800/40, 서울, 한국
	2010.3	전시《공간 경험에 대한 네 가지 실험》 바롬 갤러리, 서울 한국
	2020.6-8	《疊疊談談 첩첩담담》 봉평 콧등 작은 미술관, 평창, 한국
주요 단체 전	2020.5	《예지동 작은 발표회》 종로구 예지동, 서울, 한국
	2018. 9	《경기_아카이브, 지금》 경기 상상 캠퍼스, 수원, 한국
	2018. 8	서울시립미술관 신진 미술인 지원《A Mode》 종로구 예지동 일대, 서울, 한국
	2018.6 -	木茶:목차 6번째 프로그램《서울사람, 구보씨》 보안여관, 서울, 한국
	2017. 11	인사미술공간 예술주간 프로그램《막간》 인사미술공간, 서울, 한국
	2016. 1-4	SeMA Blue《서울바벨》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2019. 7-9	3331 아트치요다, 도쿄, 일본
레지던시	2011.7	버몬트스튜디오센터, 버몬트, 미국

프로젝트명 : <통근생활> 2018-

아티스트 스테이먼트

나는 장소와 본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바라보는 풍경과 장소, 보는 행위와 대상과의 관계에 대하여 고민으로 작품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이동, 통근, 운송, 산업현장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고 급증하는 환경과 미디어의 몰입하게 되는 현실은 장소를 모호하게 만들거나, 장소의 대한 감각을 흐트리며, 바닥이 없이 뒹뒹 떠오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장소는 발 딛고 있는 현재이자,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며 행동들과도 관련이 있다. 어떤 장소들은 특별한 행동들로 구분짓거나 인식되기도 하며, 행동들이 모여 만들어지기도 한다. 장소 혹은 공간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에 따라 다른 특성들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장소는 이미지들을 생산한다. 특히, 도시의 이미지들은 손에 잡을 수 없는 부유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가끔은 이미지 속에서 살아가기도 한다. 또한, 점점 가속화되는 속도는 실체가 아닌 움직임이나 이미지처럼 표면적으로만 느껴지기도 한다. 나는 이런 장소와 시각에 사이에서 현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보는 장치들을 해석하는 등 시각화 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진행하고 있다.

나는 처음부터 매체를 정하고 작품을 하는 편은 아니지만, 대부분 나의 활동과 작품들은 타임 베이스의 형태를 띄고 있다. 영상, 퍼포먼스, 투어 등 시간을 중심 축으로 하는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나는 풍경과 이미지의 관한 생각을 가지고 관한 영화와 관련한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였고, 투어, 영상 등 행동과 움직임을 중심으로 작품을 진행해왔다. 장소, 움직임, 행동, 상황 등 시간과 연계된 소재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프로젝트명 : <통근생활> 2018-

최근 나의 관심사는 도시와 이동에 관한 것이다. 통근과 도시에서의 이동거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나의 삶과 이동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서울, 구의동에서 태어난 후 최근 대학원을 졸업 후 부모님의 은퇴시기와 맞물려 더 멀리 서울의 외곽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직장, 인프라, 편의시설은 여전히 도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서울로 하루의 4시간 이상을 버스, 지하철, 도보 혹은 차를 통하여 이동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도시에 살면서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이동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도시와 그 속에서 각각의 개인들의 이동거리와 통근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하나의 행성처럼 점점 더 중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도시와 그속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통근생활을 추적하며 진행하고 있다. 시리즈의 형태로 제작하고 있는 본 프로젝트는 한국의 서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국경, 일본의 도쿄에서 진행되는 작품을 하고 있다.

Homepage : movingstarsproject.inf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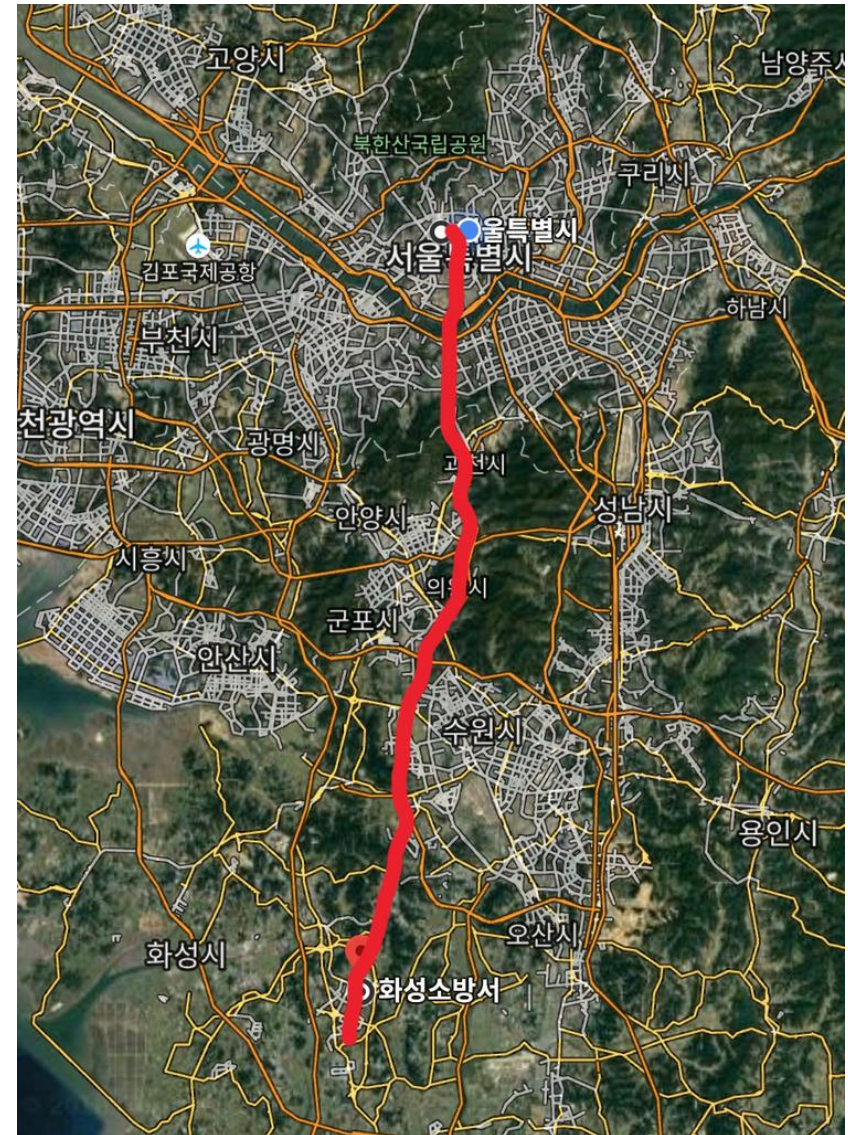
김양우의 이동경로 2017

서울에서 경기도 화성

편도 67.32km

2시간 10분

지하철, 버스, 도보로 이동



프로젝트명 : <통근생활>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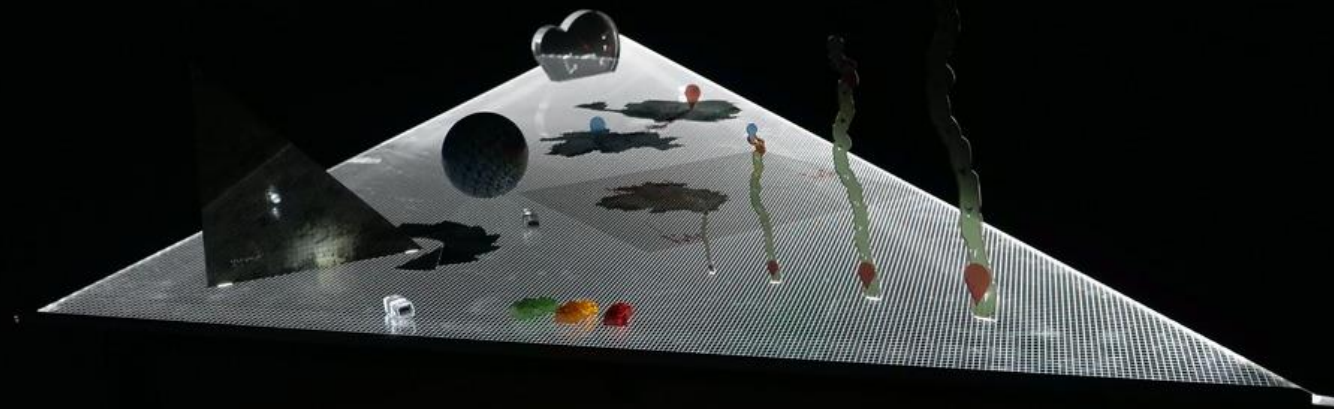


<67.32km> single channel video, 12m 12s, 2018

Link: <https://vimeo.com/367381966>

Homepage : movingstarsproject.info

프로젝트명 : <통근생활> 2018-



<67.32km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들> mixed media, dimension variable, 2019

프로젝트명 : <통근생활> 2018-



프로젝트명 : <통근생활> 2018-

<67.32km 의 1/100,000> digital print 21x29cm 2019



프로젝트명 : <통근생활>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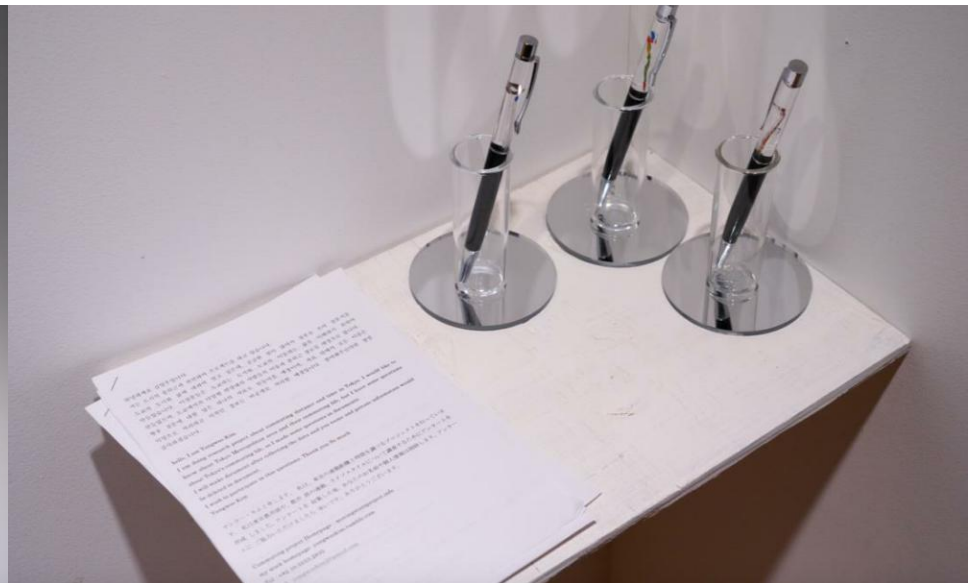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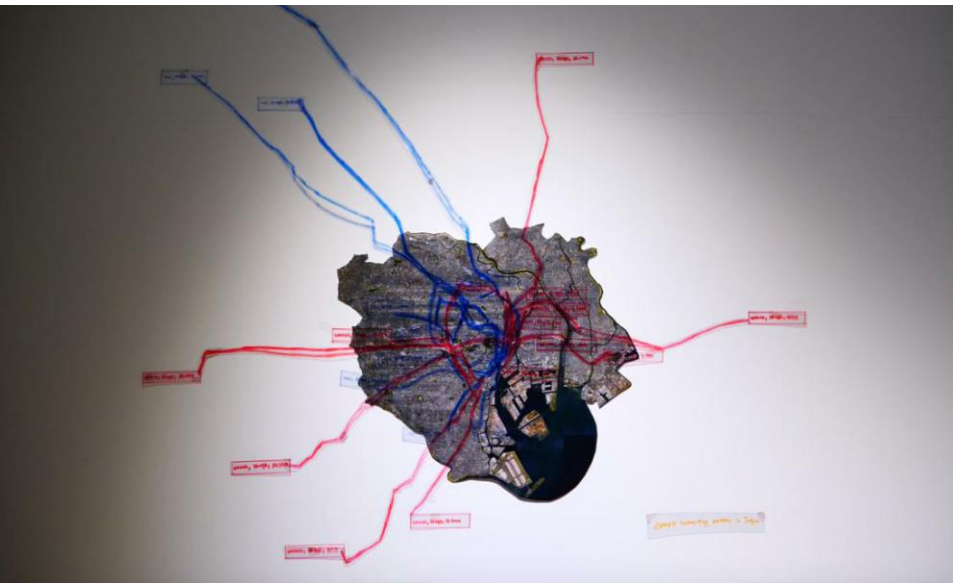
<Robak lim's 44.6km> single channel video 14m 09s 2018
Link: <https://vimeo.com/308299392>

프로젝트명 : <통근생활> 2018-



<Hinohara Yoshikazu's 88.2km> single channel video 22m 29s 2019
Link: <https://vimeo.com/360604255>

프로젝트명 : <통근생활> 2018-





〈속도의 풍경〉 photo with acrylic panel dimension variable 2017

프로젝트명 : <Factory Project> 2020



프로젝트명 : <Factory Project> 2020



Factory Project : 알콜 스왑 single channel video, 4m 15s, 2020



Factory Project :발포지 single channel video, 6m 04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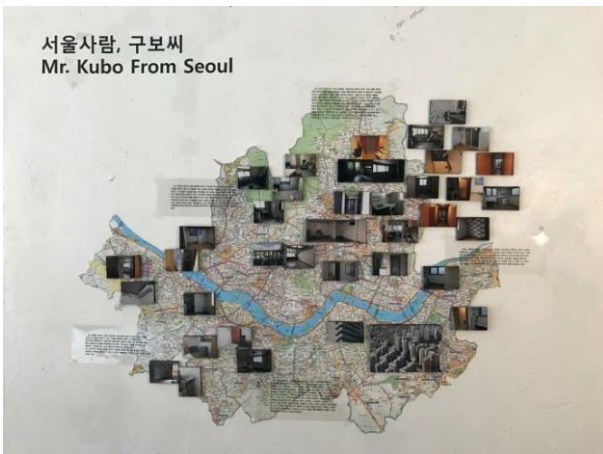


Factory Project : 휴대용 정수기 single channel video, 4m 30s, 2020



Factory Project : 샤시 single channel video, 4m43s, 2020

프로젝트명 : <서울사람, 구보씨> 2018-



<서울사람, 구보씨> , 투어, 2시간, 2018
Homepage : www.mrkubofromseoul.info

프로젝트명 : <서울사람, 구보씨> 2018-



<서울사람, 구보씨> (2018)는 투어의 형태를 가진 작품으로 1930년대 예술가들의 방황하는 모습을 그린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라는 소설을 모티브로 참여자들이 구보씨와 그의 가족이나 동료가 되어 서울의 부동산을 직접 알아보는 투어 프로그램이다.

도시는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말로 유혹하고 물건들은 구매를 유혹한다. 그 중 제일 가는 것이 부동산, 집이다. 이제 집은 삶의 터전이라기보다 많은 부분 부의 축적의 수단이 되었으며 우리의 집에 대한 삶과 환상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을 단순히 아이 쇼핑하러 다니는 투어의 형태의 작품 <서울사람, 구보씨> (2018)는 집에 대한 환상과 현실의 간극을 생각하게 하며, 집을 구매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프로젝트명 : <Bright Inside> 2018



프로젝트명 : <Bright Inside> 2018



Bright Inside 퍼포먼스, 1시간, 2018

link : <https://vimeo.com/2949454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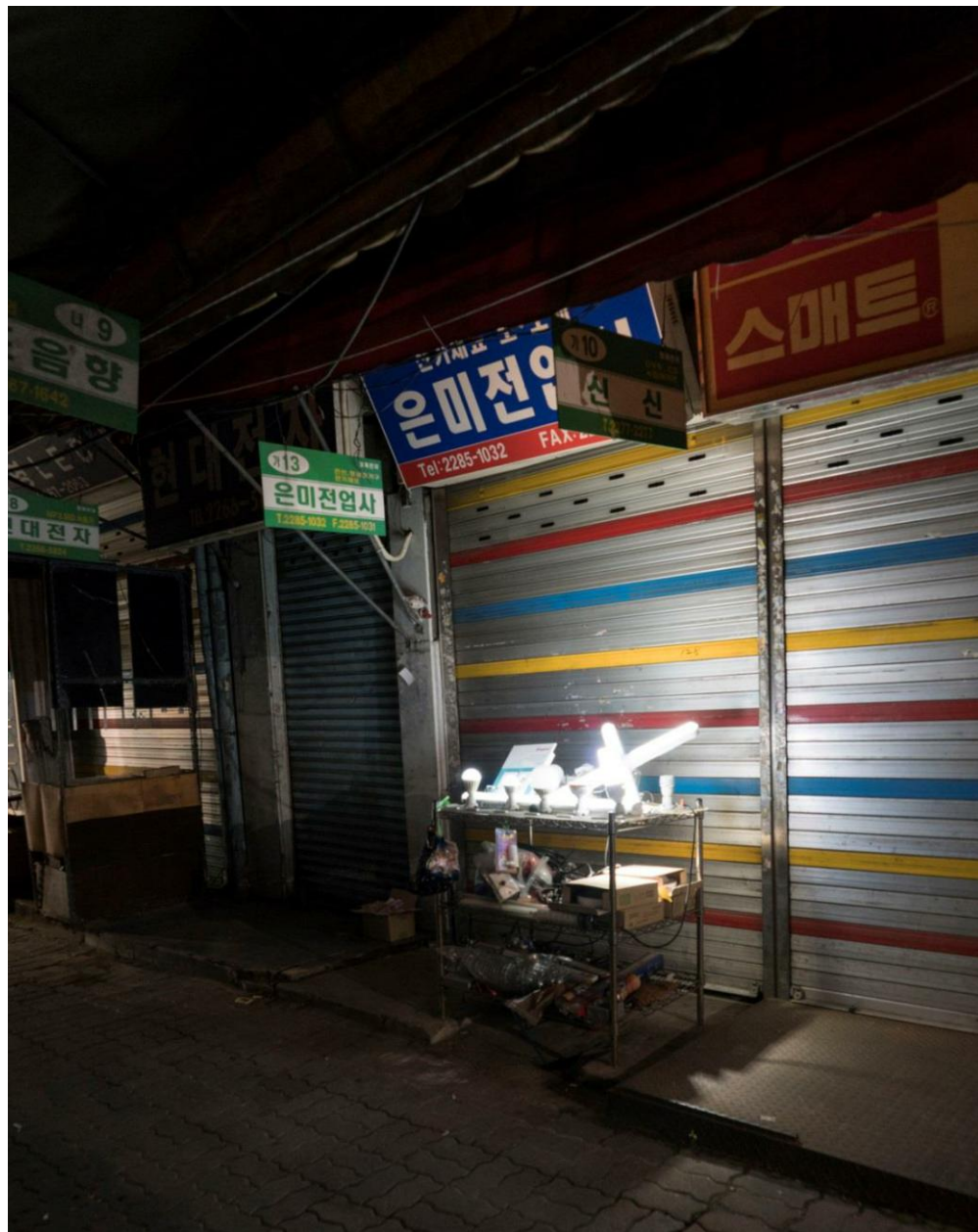
프로젝트명 : <Bright Inside> 2018



프로젝트명 : <Bright Inside> 2018

<*Bright Inside*> (2018)은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이라는 지역에서 시작한 작품이다. 예지동은 카메라, 시계, 보석, 조명 등을 수리 판매하는 개인 상점들이 즐비한 곳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서울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들과 기억들이 남아있는 곳이다. 어쩌면 사라질지도 모르는 종로구 예지동에서 약 6개월 정도 인터뷰와 자료조사를 통하여 상인들의 경험들과, 지역과 관련된 구전되는 이야기, 떠오르는 생각들을 모았다.

예지동에서 자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진열장, 조명, 카메라의 스트로보, 반짝이는 물건들이 예지동과 관련된 역사와 상인들의 이야기들을 대신 전달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부터 시작한 <*Bright Inside*> (2018)는 마치 우주에서 별자리를 찾아 다니다듯 관객들은 예지동을 돌아다니며 관람할 수 있다.



프로젝트명 : <Somewhere in the World> 2014



프로젝트명 : <Somewhere in the World> 2014



<카메라 안경>

종이, 테이프, 고무밴드 등, 가변크기, 2014

프로젝트명 : <Somewhere in the World> 2014



<그곳으로 가는 나침반>

모터, 소형카메라, TV, 종이에 아크릴 채색, 리얼타임 비디오를 이용한 설치,
가변크기 2014

프로젝트명 : <더 이문동> 2013



<더 이문동>

4채널 리얼타임 비디오 퍼포먼스, 18분, 2013

<https://vimeo.com/200462342>

프로젝트명 : <Infinite Navigation> 2016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해왔던 작품은 장소라는 것과 바라보는 대상, 시점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고민해오며 영화와 현실의 풍경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한 필름의 작품들이다. 풍경과 영화의 신의 유사점을 보며 눈과 카메라의 의 형태로, 만약 눈이 영화의 카메라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작품들이다.

더 이문동 (2013)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창으로 바라본 풍경과 육교, 스크린을 교차시키며 한 작품으로, 우리가 아는 '장소'라는 것의 인식이 바라보는 시각에 대하여 다르게 인식되는 것을 카메라의 시점을 통해 표현한 작품이다. 장소라는 개념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이문동'이라는 실제 장소에 대입하여 장을 구성하였다. 이 작품은 3가지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행정 구역상에서 존재하는 이문동과, 겪어서 알 수 있는 이문동, 그리고 관객이 앉아있는 자리로서의 이문동의 경로로 진행된다.

Somewhere in the World (2014) 는 현재 스크린과 장소와 실제의 풍경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모호한 장소의 개념과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감정을 구불구불한 골목에서 진행한 작품이다. 관객의 눈이 영화의 카메라라면 어떨지 고민하였고, 미로 같은 골목에서 선형적인 시나리오가 아닌 관객의 움직임을 통하여 다양한 장면들을 만나게 되는 구성을 생각하였다.

Infinite Navigation (2016) 은 장소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통하여 장소 위에 중첩된 또다른 공간을 만들고자 시도하였다. 세운상가의 반짝이는 불빛, 기계를 고치는 상인들, 상가 내부의 하얀 외벽은 우주의 빛나는 별, 기계 소리는 우주선의 엔진, 우주선의 하얀 내부를 닮고 있기도 하다. 나는 지역의 형태를 통해 또 다른 장소를 불러 일으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주요전시 : <67.32km>



전시일정	2019. 4. 21- 2019. 4. 23
전시장소	공간 일리(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전시소개	전시 <67.32km>는 작가 김양우가 2018년 서울에서 거주지인 화성에서 매일 오가는 거리에 대한 작품이다. 편도 67.32km되는 거리를 오가며 매일 4시간 이상 이동하는데 쓰는 자신의 삶을 보며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이동하며 보내야 하는지 궁금해 하며 작품을 시작하였다. 자신의 삶을 촬영하고 기록하고 경로를 그려보는 형태로 시각화 하며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도시에서 각자의 이동하는 삶에 대하여 질문을 던진다.
영상링크	https://vimeo.com/348092642

주요전시 : <Commuting L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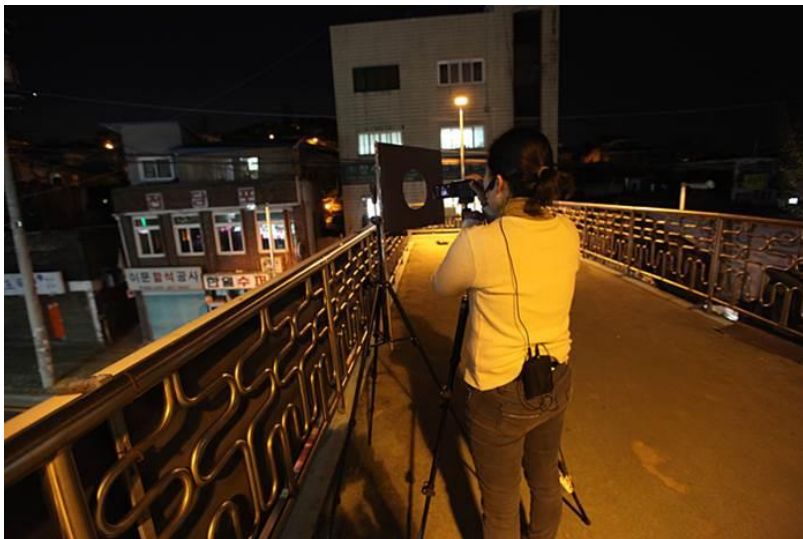
전시일정	2019. 09. 20 ~ 2019. 09. 22
전시장소	3331 art chiyoda (3331 art chiyoda, 3-6-8 iwamotocho studio, chiyoda-ku, Tokyo)
전시소개	일본 도쿄의 아키하바라에 위치한 3331 아트치요다에서 2달간 레지던시를 한 후, 김양우의 전시 <Commuting Lives>를 소개하였다. 본 전시는 도시에서 통근하고 있는 개인을 따라 일상을 촬영한 작품으로 한국의 서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국경, 그리고 일본 도쿄에서 통근하고 있는 1인의 삶을 보여준다. 우리가 매일 겪는 이동과 출퇴근이지만 비물질적인 움직임이라는 개인의 통근 과정을 시각화하며 이를 통해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확산과 공간의 분리에 대하여 고민해보았다.
영상링크	

주요전시 : <Somewhere in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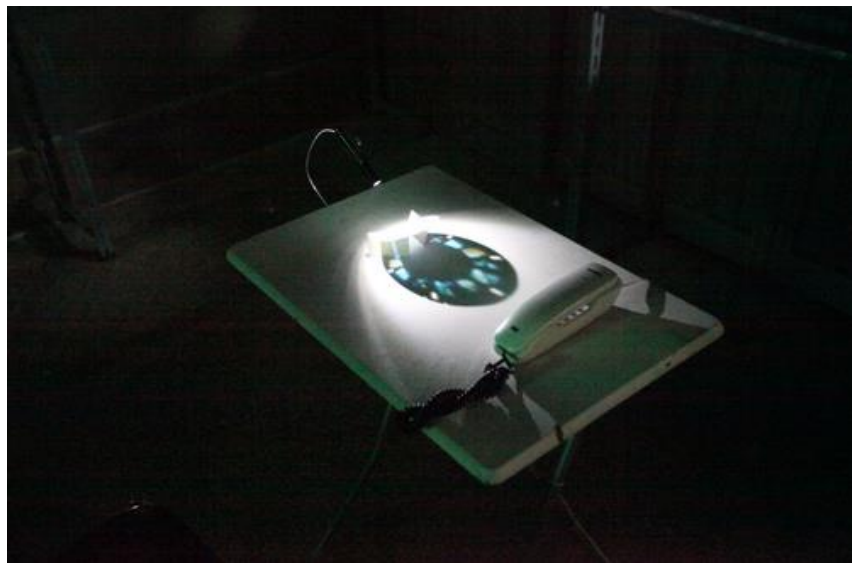
전시일정	2015. 11. 15 ~ 2020. 11. 21
전시장소	800/40, 300/20, 200/20 (서울시 중구 산림동 157)
전시소개	<Somewhere In the World>는 김양우의 동명의 작품을 말한다. 김양우는 카메라와 눈의 관계를 고민하며 작품을 진행해 왔으며, 청계천의 장면의 전환처럼 구불구불한 골목을 이용하여 눈으로 보는 영화의 공연을 만들었다. 관람객은 박스오피스에서 티켓을 끊고 관람할 수 있으며, 함께 시나리오 북을 만들었다.
영상링크	

주요전시 : <더 이문동>



전시일정	2013. 11. 20
전시장소	800/4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전시소개	김양우의 공연 작품 <더 이문동>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을 배경으로 한다. 김양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장소라는 개념이 크기에 따라 시점에 따라 위치에 따라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관객이 보는 위치에 따라 각각 다른 '이문동'을 전달하는 공연을 구성하였다. 실시간 리얼타임비디오와 망원경, 창문을 통하여 전시장 외부와 내부를 오가는 구성으로 공연 작품을 발표하였다.
영상링크	

주요전시 : <Infinite Navigation>



전시일정	2016. 12.3 ~ 2016. 12. 17
전시장소	세운청계상가 일대 (서울시 중구 산림동)
전시소개	김양우의 공연<Infinite Navigation>은 눈과 카메라의 공통점을 가지고 작품을 진행한 세 번째 작품이다. 중첩된 장소의 가능성을 실험해보고자 서울 중구 산림동에 위치한 세운청계상가를 하나의 우주의 공간으로 보고 시간을 겹치고 중첩시키는 형태로 작품을 진행하였다. 관람객은 공연을 보기 시작하면서 퍼포머와 함께 세운청계상가를 뒤로 걷는 경험을 하며 플래시 백 되는 형태의 시각의 경험을 고민하였다.
영상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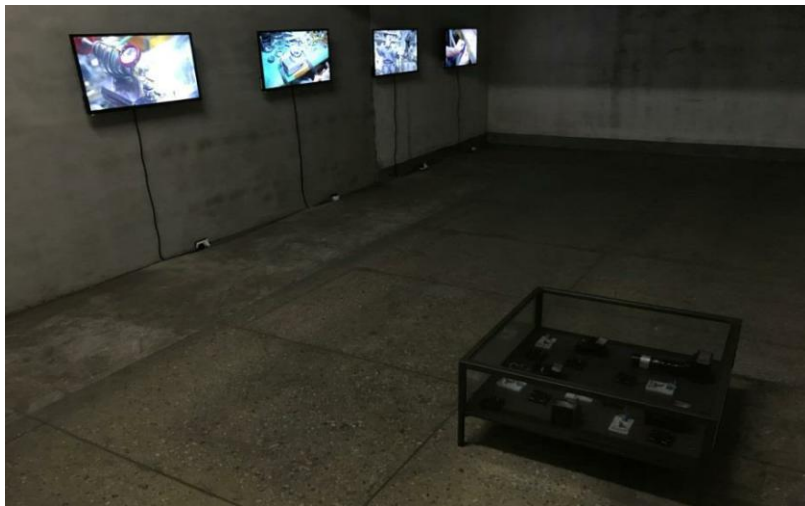
단체전시 : <첩첩담담> <예지동 작은발표회> <A mode>



봉평곶등작은미술관 <첩첩담담>
전시광경



서울미술관 신진미술인 기획전 지원 <A mode>
전시광경



<예지동 작은 발표회> 전시광경

<Commuting Lives>

언론보도 스크랩(2020.04.02, 3331 아트치요다 웹사이트, 도쿄, 일본)

AIR 3331参加アーティスト紹介～ヤンウー・キムさん密着！～

APRIL 2, 2020 5:23 PM / CATEGORY: AIR3331

AIR 3331では現在、2020年9月からのAIR 3331 オープンコールレジデンスプログラムの参加者を募集しています。応募期間:2020年8月21日(金)

秋葉原駅近く、東京の中心に位置するAIR 3331は、文化やアート、さらには地域の人々とのふれあいを通じて、作品制作やプロジェクトの可能性を広げることのできる場です!

今回は、2019年7月30日から9月23日の期間、AIR 3331のプログラムに参加した韓国入アーティスト、ヤンウー・キムさんの活動をご紹介します!

キムさんは8週間AIR 3331岩本町スタジオを拠点にし、リサーチ、作品制作、成果発表として展示会を開催しま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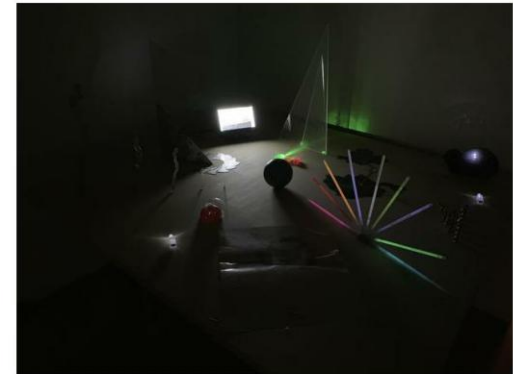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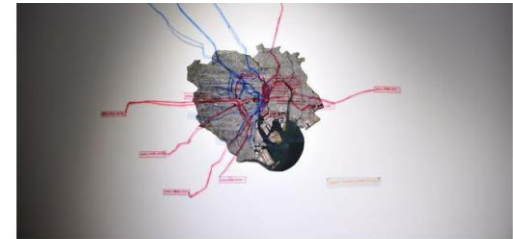


彼女は大都市における通勤距離と時間について彼女独自の視点で考察し、そこから作品を制作しています。過去にはソウル(韓国)、ジョホールバル(マレーシアからシンガポール間の通勤)、人が長い時間をかけて毎日通勤する様子を撮影してきましたが、今回のAIR 3331でのプロジェクトでは世界屈指の大都市である東京に通勤する人々に着目し、彼らの通勤する姿の撮影に挑みました。



成果展はAIR 3331 岩本町スタジオ 1Fで行われました。

岩本町スタジオは普段、アーティストの制作スタジオとして使用されています。キムさんの展示期間の3日間は彼女の作品の世界観を訪れた方々がより楽しめるよう、他の滞在アーティストと交渉しながら、展示会の空間作りをしました。



キムさんは、文化、教育、仕事が集まる都市に多くの人々が集まり、各々が住む場所に向って行く様子を可視化し、そこから生まれるものを考察しながら作品を制作していま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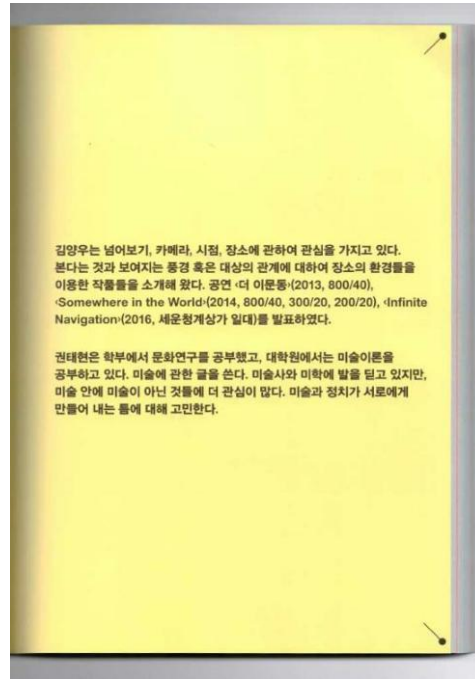


기사 주요 내용

일본 도쿄에 위치한 3331 아트치요다 웹사이트에 레지던시와 전시 리뷰에 대한 글이 소개되었다. 레지던시 기간 동안 김양우가 일본 도쿄의 거주하고 있는 이동과 통근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돌리고 이를 시각화한 결과물 그리고 서울에서의 자신의 통근과 말레이시아 국경의 개인의 통근에 대하여 함께 전시한 점을 소개하였다.

<막간> 인사미술공간 프로그램 - 아티스트토크

아티스트 토크(2017.10.13, 인사미술공간)



주요 내용

2017년 인사미술공간 연구+현장, 작가릴레이 <막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김양우와 기획자 권태현이 아티스트 토크에 참여하였다. 김양우가 현재까지 작품 활동을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생각들과 작품을 만들기까지의 과정,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다.

영상 작품 목록

순서	작품명	영상링크 / 파일명	러닝타임	제작연도
1	<67.32km>	https://vimeo.com/367381966	12분12초	2018
2	<Robak lim's 44.6km>	https://vimeo.com/308299392	14분02초	2018
3	<Hinohara Yoshikazu's 88.2km>	https://vimeo.com/360604255	21분09초	2019
4	<Factory Project : 찻술>	https://vimeo.com/470196912	5분48초	2020
5	<Bright Inside> 4channel video	https://vimeo.com/290195665	5분	2018
6	<Bright Inside> Performance Documentation	https://vimeo.com/294945489	10분 48초	2018
7	<Somewhere in the World> Performance Documentation	https://vimeo.com/116036740	16분 11초	2014
8	<더 이문동> Performance Documentation	https://vimeo.com/200462342	18분32초	2013
9	<Infinite navigation> Performance Documentation	https://vimeo.com/209169023	9분22초	2016